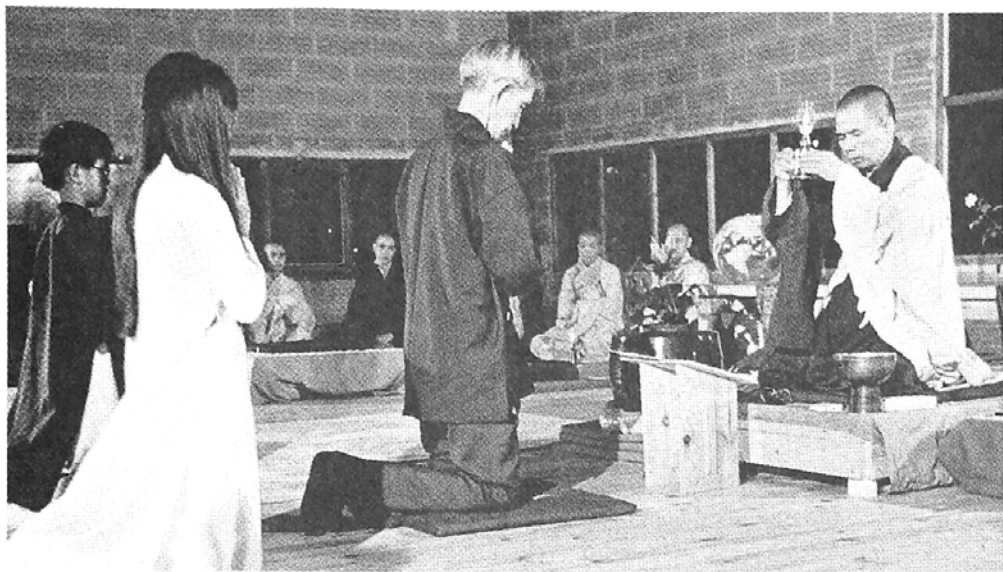




지구촌 실천불교 운동가

<2>

베트남 틱낙한스님



약력

- 1926 베트남에서 출생해 16세에 출가.
- 1960 현실참여불교재단 설립. 농촌재건운동 시작.
- 1966 불교평화연맹(美)과 교류. 베트남인의 삶을 위해 국제활동 시작.
- 1967 노벨평화상 후보자 지목.
- 1975 평화·비폭력운동 전개. 베트남에서 추방.
- 1980 전쟁 고아·보트피플 등의 인권보호에 앞장섬.

불교 공동체 자두마을(Plum Village, 佛) 조성.

저서로는 <걷기 명상 지침서>(A Guide to Walking Meditation) <평화로움>(Being Peace) <태양, 나의 마음>(The Sun My Heart) 등이 있다.

◇ 틱낙한스님이 자두마을의 하계 명상교육에 참가한 유럽인 수행자들이 '등불의식'을 집전하고 있다.

“평화의 敵은 이념·증오·무지”

“베트남의 현대사는 외세의 침략으로 얼룩졌으며 베트남인은 외세의 침략과 전쟁으로 삼 자제를 유린 당했다. 틱낙한스님은 베트남인들에게 이같은 악몽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주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Jr. 목사는 1967년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틱낙한스님을 추천하며 이렇게 말했다.

평화운동과 비폭력운동을 전개해 동아시아 실천불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틱낙한스님은 베트남 전쟁을 전후해 사원 수행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사회활동의 장(場)에서 실천불교 운동가로써 활동하기 시작했다.

사회에서 자국의 목소리를 갖지 못한 베트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베트남 재건을 위하여 국제적 원조를 호소했다. 이를 계기로 틱낙한스님은 1967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됐다.

‘현실참여불교재단’은 파리평화협정(1973)이 조인된 후에도 75년도까지 2년간 사회봉사활동을 계속 전개했으며 종전 이후에는 베트남 국내에서 평화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공산 베트남정권이 들어서면 베트남에서 틱낙한스님이 전개한 평화운동은 끊임없는 감시와 위협을 받게 되었고 결국 틱낙한스님은 베트남 정

치 감옥을 연상하게 한다. 대부분의 보트피플은 정치적 망명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수용시설은 당연히 정치적 망명자에 준해야 한다’며 보트피플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호소했다.

프랑빌리지는 망명이후 틱낙한스님의 가장 주목받는 활동의 결실. 이것은 틱낙한스님이 “한 인간의 마음이 수천의 불자들에게 전해질 때 세상은 평화와 조화로 가득할 것이다. 우리는 이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한다”며 1980년 프랑스 남부에 조성했다. 프랑빌리지는 조화·평화·불교윤리 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전쟁의

에서 생산되는 건조도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경제적 수단으로 이용되며 베트남 난민들을 돕는 기금과 베트남에 의약품 지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프랑빌리지는 매년 7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유럽전역의 일반불자에게 공개명상수행을 보급하고 있다.

또한 그는 다양한 저술 활동을 통해 참여불교의 역동성을 설명하고 종교간 화합을 주장하고 있다. <평화로움>(Being Peace)은 참여불교운동의 역동성을 강조해 세계 참여불교계에서 주목받는 저서. 틱낙한스님이 <평화로움>에서 “정부의 정책은 많은 부분에서 자국 국민의 의견과 그들의 삶의 방식에 기초해야 한다. 우리는 시민으로서 커다란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책을 입안할 정부의 권리는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인정 하에 정부가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가능하다면 그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생각에 불과하다”고 올바르게 못한 사회적 역학관계를 설명했다.

공동체마을 조성...전쟁상흔 명상수행으로 치유 공산치하 비폭력운동 전개...불교사회변혁 앞장

“명상은 사물을 관조할 수 있게하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삶의 무기”

“현실참여불교재단”(1980)을 설립해 베트남 청년불자들을 모으는 한편 불교의 자비정신을 통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베트남 농촌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틱낙한스님은 “전쟁 중에는 그 어느 쪽도 끝까지 지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 한 가지 현실의 다른 모습일 뿐이며, 진정한 적(敵)은 사람이 아니라 이념·증오·무지(無知)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때문에 현실참여불교재단의 화합과 사회재건운동은 전쟁으로 생겨난 공포와 불신의 분위기 속에서 극적 대립을 보였던 양 진영의 이해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화합과 사회재건운동을 전개한 틱낙한스님은 불교평화연맹(Buddhist Peace Fellowship, 美)을 방한해 베트남 평화운동을 국제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종전이후 틱낙한스님은 베트남 평화 불교사절단 단장을 맡아 불교평화연맹의 조정연맹(Fellowship of Reconciliation)을 통해 국제

부에 의해 구속·추방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틱낙한스님은 프랑스와 미국을 오가며 베트남 난민 지원·프랑빌리지(Plum Village) 등의 활동과 시·수필 등의 저술에서 불교적 해안(慈悲)을 제시하며 평화운동과 비폭력운동을 꾸준히 전개했다.

보트피플(Bot people)은 남베트남의 패망 후 공산정권을 피해 고국을 탈출한 베트남인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당시 이들은 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틱낙한스님은 이들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연합에서 ‘각국에 흩어진 보트피플의 수용시설은 마

상흔을 치유하고 현대의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한 불교공동체 마을이다. 이때가 틱낙한스님이 공산 베트남 정부로부터 추방당한 시기이기도 하다.

초창기 프랑빌리지는 베트남 난민과 보트피플을 위한 피난처를 위해 사원을 세우고 이들 대부분이 겪고 있는 전쟁의 고(苦)를 명상수행으로 치유하는데 주력했다. 그리고 프랑빌리지는 점진적으로 유럽에서 불교환경운동·불교사회변혁운동 등의 요량으로 발전해 나아갔다.

프랑빌리지는 남부 프랑스에서 건조도 최대 매울 지역. 따라서 프랑빌리지

의 권리는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인정 하에 정부가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가능하다면 그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생각에 불과하다”고 올바르게 못한 사회적 역학관계를 설명했다.

그리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 “우리는 현실에서 분명히 진실을 보아야 한다. 먹고 마시는 우리의 일상이란 바로 정치적 상황에 놓여있기 마련이다. 명상은 사물을 깊이 관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왜냐하면 상황이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자각이 중요하다. 이런 자각이야말로 삶의 무기이며 진정한 의미의 참여불교가 될 것이다”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오종욱 기자

나의 수행일기

김의식 <국토개발연구원>



23년전 일이다. 육군훈련소를 마치고 배속된 부대는 현 부천시 송내역 부근의 유신부대 포병사령부였다. 사단내에는 우수한 연대와 대대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중앙의 동산에는 교회가 있었다. 불자인 나로서는 당연히 군법당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사단급이라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법당은 없었다. 사단 내에는 5백여 불자가 있었는데 스님 사병도 다수 있었다.

나는 발원하였다. 부처님의 법이 이 영내에 퍼져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불자들의 깨달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우선 군중참모부를 방문하여 군법당을 설치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목사인 부관이 불교는 가만히 있는데 왜 우리가 나서냐고 반박했다. 당시는 기독교인이지만 그 보적이 군인을 위한 군중이지 않냐고 따졌다. 그러자 사병이 건방지고도 욕박질렀다. 내무반에 돌아오니 군중사관들의 협박과 협

곳은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다. 나는 “성스럽다는 것은 십자가로 인한 것이니 십자가를 떼고 법회를 보면되지 않습니까?”라고 억지 아닌 억지를 부렸다.

이런 줄다리기로 어떤 1년6개월이 흘렀다. 이런 열정은 아마 대불원에서 얻어진 신앙이 바탕이 되었던 것 같다. 군중부와 근무지를 뛰어다니다가 발바닥이 찢어져 의무대에서 수 바늘을 꿰는 일이 벌어졌다. 군중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당혹했던지 육관구 법사를 나에게 보내어 일을 추진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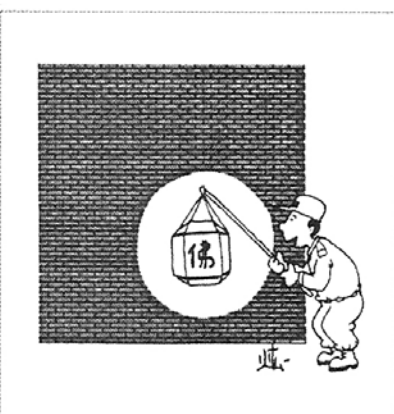
어느덧 초파일의 날이었다. 나는 직지사 스님법사와 함께 석바위 약사사에 들러 큰 연등을 사서 사단장 숙소에 달아드렸다.

“발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니 성취”

군법당 건립 동분서주...제대후 연화사 생거

구가 심했다. 나는 다시 군중참모부 가서 군중사관의 부당함과 군중참모부를 차라리 '기독교 참모부'로 개칭할 것을 요구했다. 이리기를 수 차례 한 후 사단 사령부로부터 보직을 옮기고 PX에 근무하게 되었다.

나는 다시 군인의 사기와 인간애를 높이고 자아발전을 위해 군법당이 필요하다고 사단장에게 건의서를 올렸다. 그리고 동국대 내에 있는 홍무원을 방문. 분기별 법회를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우리사단의 불교포교는 육관구에서 관할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처리해줄 것이라고 거절하였다. 군중참모부에서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니 법사를 모셔오면 법회를 인정하자는 의견만 제시할 뿐이었다.



이것이 인연이 법회를 장교실당에서 봉행하게 되었고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나는 이날 오기를 얼마나 고대했는가.

50여명이 참석한 법회는 힘차게 진행되었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사단내에 다섯 분의 스님들을 알게되었다.

몇 달이 지난후 다시 홍무원에 들러 군법당의 필요성을 밝히고 협조를 구했지만 난색을 표했다. 그후 군중참모부에서 호출이 왔다. 법회를 보도록 해줄테니 법사를 모셔오라고 했다. “그걸 왜 내가 합니까. 나의 보직은 군중이 아닙니다”라고 거절하였다. 그리고 또 법회 불 장소가 없으니 장소도 마련하라고 했다. “그럼 교회학사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했다. 그

스님들은 한결같이 정기법회를 가질때까지 뒤에서 적극 지원해 주고 마음으로 기도할테니 열심히 뛰기를 제의하였고 인사처 부관은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순리에 맞도록 일을 추진하라는 격려도 해 주었다.

초파일법회는 장교실당에서 진행되었다. 이 법회에 참석한 사단장 사모님은 초파일 법회를 식당에서 보다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마음 아파하셨다. 이것이 연유가 되어 나는 법사님을 자주 법당자리와 법당의 건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되었다.

제대후에 사단에는 연화사라는 절이 탄생하였다고 한다. 나는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부처님의 법을 사단내에 심게 도와 주신 당시의 군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발원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부처님께서는 꼭 감응하여 주심을 체험하였다.

신속하고 꼼꼼한 새로운 차원의 DM서비스 (주)아림DM

전자동 기계화 시스템의 새로운 DM서비스-대량의 우편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시간과 비용절감을 원하십니까? - 자동화시스템으로 해결합니다.

아림은 제작, 포장 발송의 전과정을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축, DM발송에 드는 시간과 기본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1시간에 15,000부를 소화할 수 있는 우편물 처리능력을 가진 아림의 자동화시스템은 우편물 포장 중앙 관리장치로 입고부터 생산·발송·사후처리까지 작업의 전과정을 일괄적으로 관리 통제하여 대량의 우편물들을 정확하고 빠른 속도로 처리합니다.

아림은 전문화된 DM서비스로 보내는 이의 우편물 한장 한장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홍보를 원하십니까? - 기획, 발송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아림은 전문홍보기획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각종 DM, 범피치, 안내문의 제작까지 책임집니다. 인쇄방법, 지질, 색깔 모양 등 모두가 자유입니다. 기획에서 발송까지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운영,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실현합니다. 목적에 맞는 효과적이고 생생한 DM의 효과를 경험하십시오.

성실한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 아림은 철저한 프로페셔널 정신으로 업무에 임합니다.

성실한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아림은 기계화된 포장시스템과 넓은 보관공간, 신속한 운반시스템으로 고객의 우편물들을 훼손없이 안전하게 전달하고 계공된 자료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아림에 맡겨진 우편물들은 사소한 과정에도 소홀함이 전과정이 꼼꼼하게 관리됩니다.

취급 우편물-Packaging, 신문·잡지·카탈로그·서적·카드 등 3종 우편물 포장방식-종이포장·비닐포장·수축포장·신문포장 등 다양한 방식의 DM서비스로 대량의 모든 우편물 취급

(주) 아림DM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00-29 Tel 803-2445 · Fax 807-5784 · 정기간행물 및 각종 우편물 발송대행 · 자료입력 및 데이터 관리 · DM 프로그램 개발 · 범피보 발송